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2018년 11월 22일(목) 11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 11. 21.(수)	담당부서	조선해양플랜트과
담당과장	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윤성혁 과장(044-203-4330)	담 당 자	김덕구 사무관(044-203-4331) 김완상 사무관(044-203-4334)
	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윤현주 과장(044-200-2211)		조성래 사무관(044-200-2212)
	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김명규 과장(044-215-2750)		최정빈 사무관(044-215-2752)
	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조성환 과장(02-2100-4280)		주현민 사무관(02-2100-4382)
	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마성균 과장(044-202-7404)		하지영 사무관(044-202-7406)
	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김광용 과장(044-200-5280)		이진우 사무관(044-200-5289)
	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이순배 과장(042-481-4545)		윤성웅 사무관(042-481-4382)
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손주형 과장(02-2100-2860)		이한샘 사무관(02-2100-2861) 김종식 사무관(02-2100-2865)
	방위사업청 전투함사업팀 방극철 팀장(02-2079-5510)		손인기 사무관(02-2079-5506)

『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』 발표

- 친환경 전환 촉진을 통한 **1조원 규모 중소조선사 대상 신시장** 창출 및 **친환경 조선강국으로의 도약** 지원 -

- 제작금융, 보증 등 **7천억 원 신규 금융지원 및 1조 원 만기연장** -

- 고부가가치 수소선박 및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 **미래경쟁력 제고** -

□ 정부는 '18.11.22.(목)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(주재 : 국무총리)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**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**」**을 발표**했다.

○ 지난 4월 「**조선산업 발전전략**」 발표 이후 정부는 **국무총리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중심**으로 지속적인 **현장행보***를 통해 **조선업계의 의견을 수렴**해왔다.

* (총리) 지역경제 현장점검(통영·거제, 10.12), 울산지역 경제인 간담회(울산, 11.2) (산업부장관) 조선기자재업계 간담회(부산, 10.22), 지역발전전략 보고회 및 업계 간담회(군산 등, 10.30) 등

○ **산업 현장에서는** 최근 시황 회복에 따라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**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, 중소조선·기자재업체는 여전히 어려움**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.

□ 이에 정부는 **대형사,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계와의 폭넓은 의견수렴**을 토대로 **관련 지자체(부산, 울산, 전남, 전북, 경남)와 공동**으로 금번 활력제고 방안을 수립했다.

○ 과거 '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(16.10)', '조선산업 발전전략(18.4)'이 주로 **중대형조선사를 정책대상**으로, **구조조정과 미래 경쟁력 제고**에 초점을 맞추었다면,

○ 이번 활력제고 방안은 **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**으로 **금융, 고용 등 당면 애로 해소**와 함께,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 친환경으로의 규제혁신을 계기로 액화천연가스(LNG)연료선, 탈황설비(스크러버) 등 **새로운 시장과 일감 확보**에 중점을 두었다.

<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주요골자 >

3대 활력제고 방안	정 책 과 제
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창출	① (법·제도) 배출규제해역(ECA) 시행(21.1월) 등 제도기반 구축 ② (보급) 친환경 선박 및 설비 보급 확대 지원(1조원 규모) ③ (R&D) LNG·수소·전기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선(3척) 도입 ④ (인프라) LNG벙커링 등 인프라 구축(2조8천억원 투자)
금융, 고용 등 단기 애로 해소	⑤ (금융) 대출·보증 만기연장(1조원) 및 금융지원 신설·확대(0.7조원) - 조선사-기자재 상생의 제작금융 프로그램 신설 - 유망사업 분야 진출 보증 프로그램 신설 - 중소조선사 RG 보증 규모 확대 ⑥ (고용)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연장 추진 - 지역 중심의 유휴조선소 공동 활용
고부가가치 선박개발 등 중장기 경쟁력 제고	⑦ (기술) 자율운항선박 개발 ⑧ (설계) 중소조선소 설계 역량 강화 ⑨ (건조) 스마트 조선소 도입 확대(스마트 K-야드) ⑩ (영업) 해외 거점 구축 등을 통한 수주 확대 지원

【친환경 신시장 창출방안】

□ 정부는 지난 11.8일 현안조정회의에서 「**비상·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**」을 발표하고, **부산 등 주요 항만 인근지역을 배출규제해역(ECA)으로 지정**하는 등 미세먼지를 감축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.

○ 정부는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조선산업의 **친환경 체제 전환을 촉진**하고, LNG연료선 등 **친환경 기술 확보 및 관련 시장 창출**을 통해 향후 **미래 시장을 주도**해 나갈 수 있도록 **지원할 계획**이다.

□ 우선, **'19년 시범사업***을 시작으로, **'25년까지 총 140척의 액화천연가스(LNG)연료선을 발주**해 **중소조선사 대상 1조 원 규모 신시장****을 창출하고자 한다.

* 선가 보조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인선을 LNG연료선으로 전환('19년 2척)
** 국내 중소조선사(78개사) '17년 매출 총액은 6,012억원으로 24개사가 70% 차지

○ 이를 위해 공공부터 **액화천연가스(LNG)**연료선 **적합선종***에 해당하는 **관공선은 '20년부터 액화천연가스(LNG) 연료선으로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**할 계획이다.

* LNG연료추진 적합선종 지정 추진('18년내, 산업부)

○ 또한, 민간의 도입 확대를 위해 노후선의 폐선을 통한 **액화천연가스(LNG) 연료선으로 전환을 적극 지원**해 나가기로 했다.

□ 아울러, **액화천연가스(LNG)** 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**'25년까지 민·관이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연료공급**(벙커링) **기반시설도 확대**하기로 했다.

○ 현재 건조되는 1척의 벙커링선박* 외 **4척의 선박·설비를 순차적으로 발주****하는 한편, 배후 기반시설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.

* 가스공사는 LNG선 겸용 벙커링선(7,500㎥) 1척 기건조중('19년말 인도)
** 발주(안) : ('19년) 벙커링선 1척(6,000㎥) 및 해상부유식 저장설비(FLBT) 1기,
('23년) 벙커링선 1척(3,000㎥) 및 선적설비 1기

○ 또한, 「**도시가스사업법**」 **개정***을 통해 **별도의 액화천연가스(LNG) 벙커링 비규제시장을 신설하기**로 했다.

* 개정내용(안) : LNG벙커링을 별도의 사업 영역으로 분리, LNG 조달 및 가격 규제를 완화, 사업자 간 거래 허용 등

【금융애로 지원방안】

□ 정부는 중소조선사,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**총 7천억 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및 1조 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**하기로 했다.

○ 특히, 이번 금융지원은 **대형조선사**(현대중, 삼성중, 대우조선), **지자체**(부산, 울산, 전북, 전남, 경남), **정부 등의 공동 출연**으로 마련된 것으로 **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추진**해 나간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.

□ 세부적으로, 우선 지난 10. 24. "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"에서 발표한 **제작금융 등 보증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총 4천억 원 규모의 3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**했다.

① 일감 확보에도 불구하고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**기자재사에 대해서는 1천억원 규모의 신·기보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억원**(기존 보증 제외) 제작금융 지원

② 최근 시장이 급성장중인 **탈황설비(스크러버)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**에 대해서는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하여 **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총 2천억 원 규모의 제작금융 등을 지원**

③ **선수금환급보증(RG)**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**중소조선사를 위해 기존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(RG)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**(1천억원→2천억원)하고, **70억 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선수금환급보증**이 가능하도록 조정

□ 아울러, **올해 말로 임박한** 산업위기대응지역*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**약 1조 원 규모 대출·보증에 대해** '19년 말까지로 **1년을 추가로 만기연장**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.

* [전북] 군산, [경남] 거제, 통영·고성, 창원 진해구, [전남] 목포·영암·해남, [울산] 동구

○ 또한, **방산분야 보증제도 개선***을 통해 올해 말까지 **조선 방산업체에 3천억 원 규모의 제작금융이 공급**될 수 있도록 했다.

* 함정사업에 대한 기성제도 적용을 통해 보증 부담을 50%까지 인하하여 보증 한도로 인해 막혀있던 제작금융 공급

□ 한편, 이번에 마련된 금융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**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 면책** 방안을 추진하여, **정책 금융기관 등이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**하기로 했다.

【고용애로 지원방안】

□ 정부는 조선업 고용이 금년 9월부터 회복세로 전환*되었으나, 여전히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, 향후 **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'19. 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**** 하기로 했다.

* '15.12월(18.7만명) 이후 32개월 연속 감소후 첫 증가
- ('18.8월) 104,900명 → ('18.9월) 105,400명 → ('18.10월) 105,900명

** 최종 지정 연장은 현장·전문가 의견수렴, 관계부처 협의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('18.12)

□ 또한,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불황으로 **악화된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급선무**라고 판단하여 **채용설명회 개최* 및 전문인력 양성**을 적극 추진하고, 신규채용시 장려금*** 등을 지원**하기로 했다.

* 조선산업 취업 순회설명회 개최(안) : 울산(4월), 거제(5월), 목포(6월)

**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(600명), 친환경·스마트 전문인력 양성사업(120명),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(40명), 용접·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(1,000명, 이상 '19년)

*** 지역고용촉진 지원금('19, 81억원), 위기지역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('19, 23억원)

○ 아울러, 조선소 폐업·가동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지자체, 지역기업 등 **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재가동까지 조선소 활용방안을 논의**해 나가는 지역 중심 플랫폼 가동을 추진키로 하였다.

【고부가가치 선박개발 등 미래경쟁력 강화 방안】

□ 정부는 업계의 **단기적 활력제고 뿐만 아니라**, 친환경·스마트 중심으로 중소조선·기자재업계의 **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도 지속 지원할 계획**이다.

○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**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, 수소경제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'19년부터 수소 선박 개발을 본격 추진**한다.

* '수소연료 기반 선박 R&D 플랫폼 구축사업'('19-'23년, 총 420억 원), '온실가스저감 미래선박 핵심기술 개발'('19.상 예타 신청, 약 6천억 원) 등

- 이를 통해, **'30년 핵심 기술 100% 국산화, '35년 대형 무배출시스템(Zero Emission) 선박 건조 등의** 목표를 달성하여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아울러, **자율운항선박 기자재·시스템 기술개발, 실증 및 인프라 구축 추진**(19.2월 예타신청)등을 통해 다가오는 자율운항 시대를 준비해 나간다.

○ 한편, 경쟁국 대비 취약한 **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**(ICT)를 활용하여 **최적의 물류·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케이(K)-야드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**(예타 기술성평가중)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이외에도 표준설계 지원*, 설계사업단 구성** 등을 통해 중소조선사의 **설계 경쟁력 향상을 지원**하고, 수출지원센터 추가 구축*** 등을 통해 **영업 활동도 지원해 나갈 계획**이다.

* 중견조선소 혁신성장 개발사업('19~'23년, 총 398억원[국비 298, 민간 100])
** 중형선박 설계경쟁력 강화사업('18~'21년, 총 297억원[국비 174, 민간 123])
*** (현재) 2곳(상해, 싱가포르) → ('19년) 4곳(아테네, 샹페테르부르크 추가)

【상생협약식 개최】

□ 한편, 이번 「**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**」**의 효율적 추진**을 위해 **조선업계-지자체-정부 공동**으로 **상생협약식**(11.22, 11:00, COEX)을 개최했다.

○ 본 협약식에는 조선업계를 대표하여 **대형조선사**(현대중, 삼성중, 대우조선), **조선공업협동조합, 조선기자재협동조합**이 참석하였고, 조선밀집 **5개 지자체**(부산, 울산, 전북, 전남, 경남)도 참석했다.

< 조선업계 상생협약식 개요 >

○ 일시 및 장소 : 11.22(목) 11:00-11:45, COEX

○ 참석 : 산업부 장관, 대형조선사(3사), 조선공업협동조합, 조선기자재협동조합, 지자체(부산, 울산, 전북, 전남, 경남)

○ 행사내용 : 사전환담, 상생협약식

□ **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협약식에서 “우리 조선산업은 연말까지 약 1,200만 CGT을 수주하여 ‘14년 수주실적에 근접할 전망으로, **’18년 수주물량이 건조에 투입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**한다”라고 시황을 평가하고,

○ “이번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부산, 울산, 전북, 전남, 경남 등 조선 밀집지역, 대·중견·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등 **다양한 지역과 업계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해 마련했다.”라고 강조**하면서,

○ “특히 **친환경 체제로의 전환**은 **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**로서, **대한민국이 친환경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발돋움**할 수 있도록 **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**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아울러, **성 장관은** 이번 대책을 통해 업계의 **당면 애로인 금융경색, 일감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어** 우리 조선산업이 현재의 **보릿고개를 극복하고,**

○ 지속 회복 중인 시황의 물결을 타고 **빠르게 정상궤도로 복귀**하여 **글로벌 1위의 위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**고 말했다.

※ 붙임 : 「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」, 조선업계 상생협약식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김덕구 사무관(☎ 044-203-4331), 김완상 사무관(☎ 044-203-433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2 **조선업계 상생 협약식 개요**

1. 일　　시 : '18.11.22(목), 11:00~11:45(45분)

2. 장　　소 : COEX 컨퍼런스룸(남) 318A(사전간담회장은 317A)

3. 참 석 자 : 15명

○ **산업부**(3) : **산업부 장관,** 시스템산업국장, 조선해양플랜트과장

○ **지자체**(5) : **울산시** 송병기 경제부시장, **전북도** 최정호 정무부지사, **전남도** 윤병태 정무부지사, **경남도** 문승욱 경제부지사, **부산시** 이준승 일자리경제본부장

○ **조선업계**(7) : 대형조선사(3), 중소조선사(2), 기자재업계(2)

- (대형) **현대重** 가삼현 사장, **삼성重** 정해규 부사장, **대우조선** 조욱성 부사장
- (중소) **조선공업협동조합** 이상일 이사장, **삼원중공업** 한창범 사장
- (기자재) **기자재조합** 박윤소 이사장, **대아산업** 고창회 사장

4. 장관님 역할 : 사전간담회, 협약식 인사말씀, 업무협약서 체결

5. 세부계획

11:00 ~ 11:20(20')	**사전간담회**	* 장소 :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A (17')
	* 참석자 전원(비공개)	
11:20 ~ 11:45(25')	**상생협약식**	* 장소: 코엑스 컨퍼런스룸 318A * 진행: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
	* 간담회장 맞은편(공개)	(3')
	o 참석자 소개(4') o 산업부 장관 인사말씀(3') o 협약서 서명(5') o 기념촬영(3') o 주요 참석자 발언(10')	(25')